

배우 권상우, 드라마 이어 두 편의 영화로 돌아온다

2001년 MBC 드라마 '맛있는 청혼'을 통해 배우로 데뷔한 탤런트 권상우는 한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1998년 카탈로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당시 그의 수입이론 매달 들어오는 모델료 40만원이 전부였다. 권상우는 2003년과 2004년에 출연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동갑내기 과외하기'가 각각 약 311만명과 약 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연말 흥행에 성공하며 인기 배우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영화 '동갑

내기 과외하기'로 제39회 백상예술대상 남자신인연기상과 제40회 대중상 영화제 신인남자배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2003년에는 그를 한류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는데 바로 SBS '천국의 계단'이다. 최지우와 함께 출연한 '천국의 계단'은 국내에서 평균 시청률 40%를 기록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류 붐을 일으켰다.

또 권상우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KT와 삼성전자 등 무려 12편의 광고에 출연하며 CF킹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중인 2008년 배우 손태영과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놀라움을 안겼다. 이 부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에도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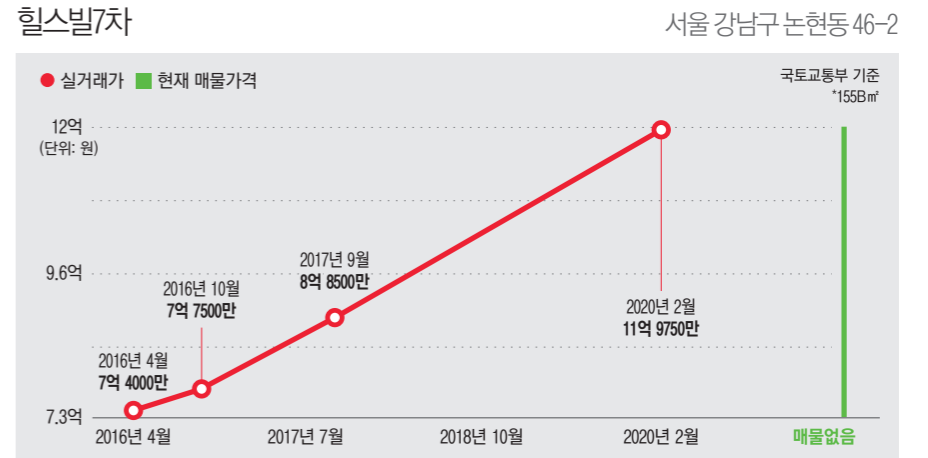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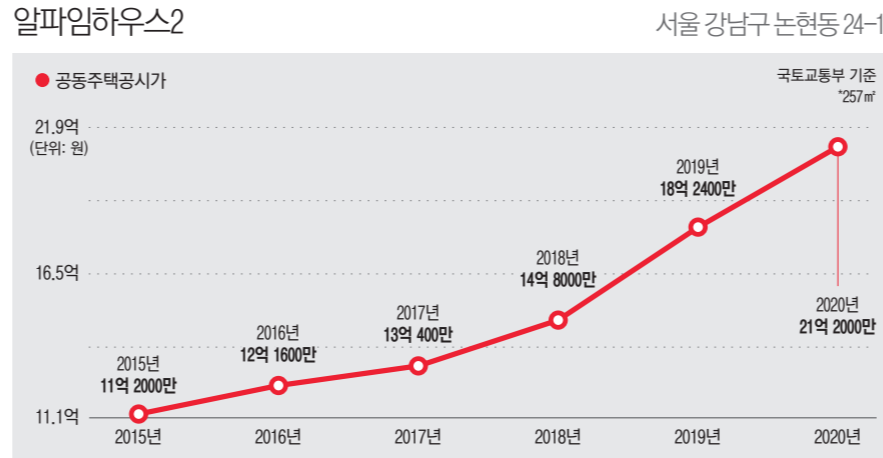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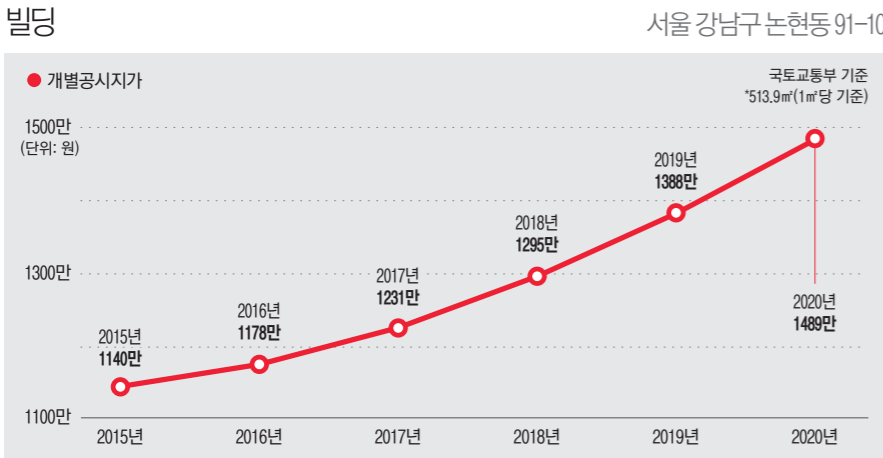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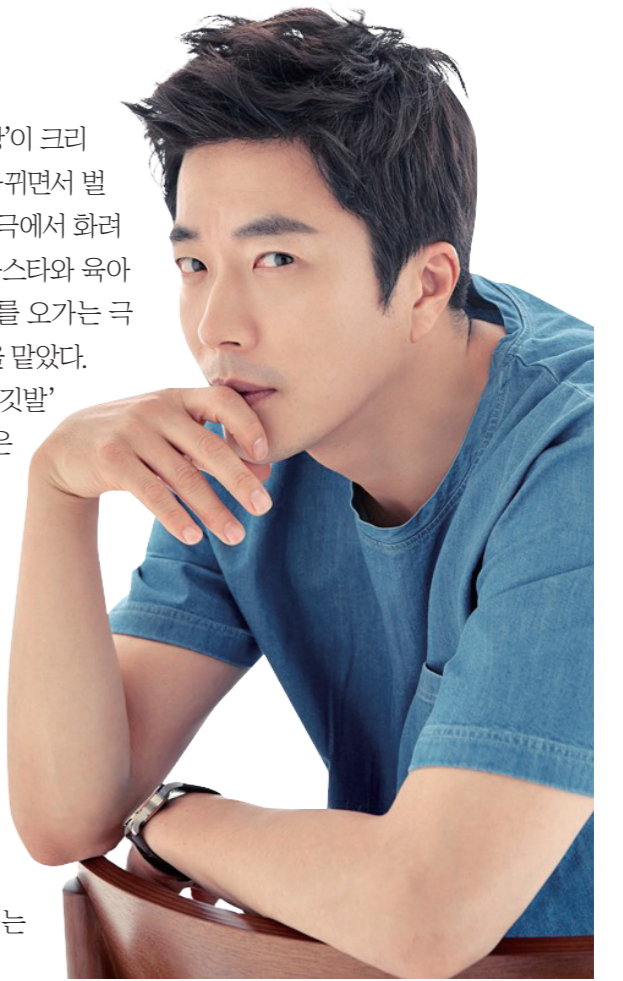
특히 2015년에는 추석 연휴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탐정 더 비기닝'에서 주인공 강대만 역을 맡아 26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 6월 개봉한 속편 '탐정 리턴즈'는 관객 수 315만명으로 전편의 흥행 성적을 뛰어넘으며 배우로서 인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권상우는 올해 1월 종영된 역력한 누명을 쓴 사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출연해 열정과 정열감을 가진 고졸 국선 변호사 박태용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특히 같이 주연을 맡았던 배우가 다른 배우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흔들림 없이 임해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권상우는 영화 두 편으로 다시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가제)은 캐스팅 0순위 천만배우이자 실시간 검색어 1위 스타플레이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 '박강'이 크리스마스에 인생이 180도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권상우는 극에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톱스타와 육아와 생계에 차이는 재연배우를 오가는 극과 극 인생을 사는 박강 역을 맡았다.



논현라플리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2



오봉석

현)동일건축 회장

오봉석 동일건축 회장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부산시청 건축과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종합건축회사인

동일건축을 설립했다. 2017년 미국 건축사협회(AIA)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동일건축은 시공과 설계, 사후관리 등 건축과정을 별개로 다루는 것이 대세였던 건축 시장에서 이를 종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봉석 회장은 일찍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 대학생 설계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설계능력의 고도화 및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해외과 디자인본부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옥택연

현)가수, 배우

옥택연은 12세 때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2006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인 발굴 프로젝트 '슈퍼스타 서바이벌' 모델 부문 예선에서 리듬을 타며 랩을 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후 옥택연은 가수로 데뷔하기 전 JYP 신인육성 프로젝트 '열혈남아' 등에서 실력을 다진 뒤 2008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한민국 6인조 보이그룹 '2PM'으로 데뷔했다. 그는 2010년 KBS2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를 시작으로 '드림하이'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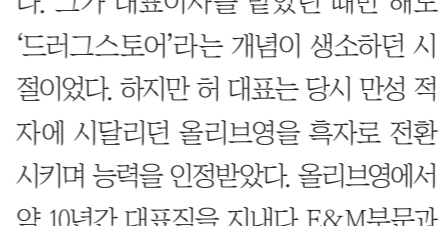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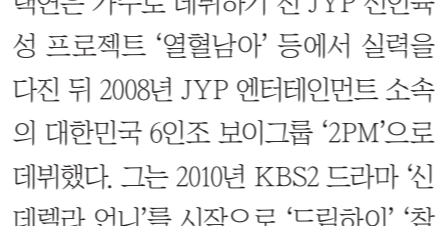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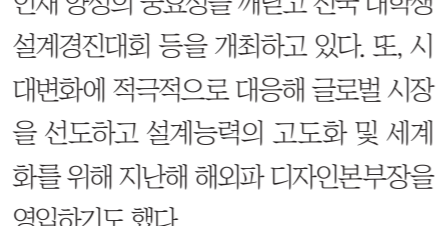
좋은 시절' '구해줘' '더 게임: 0시를 향하여' 등에 출연하며 가수 활동과 연기를 병행했다. 옥택연은 현재 tvN 드라마 '빈센조'에 출연 중이며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명량'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올해 개봉 예정인 '한산: 용의 출현'에도 출연한다.

허민호

현)CJ ENM 총괄부사장

허민호 CJ ENM 총괄부사장은 서울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널, 동화면세점 등에서 영업과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8년 CJ올리브영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때만 해도 '드러그스토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당시 만능적자에 시달리던 올리브영을 흑자로 전환시키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올리브영에서 약 10년간 대표직을 지내다 E&M부문과

커머스(옛 오쇼핑)부문을 합친 CJ ENM 출범과 함께 커머스부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물류서비스 개편 등으로 CJ ENM 커머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지난해 12월 CJ그룹 2021 정기임원인사에서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내 입지를 굳혔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태영건설 '용인 드마크 데시앙' 이달 중 분양

용인시 처인구

태영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8구역에 재개발하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에 들어설 '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 동, 총 1308가구 규모이다. 이 중 1069가구가 일반 공급되며,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1~84㎡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 바로 앞에는 축구장 7개 크기와 맞먹는 32만㎡ 규모의 대형 근린공원인 용인중앙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축구장과 농구장,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휴식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또, 단지 동측에 경안천이 흐르며 돌봄산, 봉두산, 마평동산 등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운동장-상단대역과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남쪽으로는 42번 국도, 동쪽으로는 45번 국도가 인접해 있으며, 3km 이내 영동고속도로(용인IC)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향후 신설되는 GTX-A노선(예정)과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가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 핵심 로데오거리 상권과 함께 역북지구의 풍부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용인 에버랜드, 용인시종합운동장, 용인중앙시장,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과 처인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반경 1km 이내에 용인초등학교, 용인중학교, 태성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명지대, 용인대 등 다수의 대학도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내 대규모 사업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우선 2024년 완공 목표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되면서 여의도 1.4배 면적에 4개의 생산공장과 5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처인구 고림동 일대에서 국내 두 번째 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용인국제물류단지 4.0사업도 계획 중이며, 일산산업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도 올해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용인의 허파로 평가받고 있는 용인중앙공원과 맞닿아 있어 친환경 단지에 관심이 높은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여기에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거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 내 신 규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 드마크 데시앙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에 들어서며, 3월에 오픈 예정이다.

'시흥형주거비'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월세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2016년 7월부터 시흥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1인 가구에 월 11만95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는 아동 1인당 기준 지원액에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09만 6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만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매월 460가구 1160명이 '시흥형주거비'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26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최정민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지원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